

## 白居易 下邳시절 閑適詩 고찰

정원호\*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2) 자아성찰 |
| 2. 백거이 생평   | 3) 인생관  |
| 3. 下邳시절 閑適詩 | 4. 나오며  |
| 1) 전원생활     |         |

### 【초록】

본고는 중국 唐代 詩人 白居易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인 下邳로 隱居해 있던 시절 창작한 閑適詩에 관하여 고찰한 글이다. 백거이는 30대 左拾遺와 翰林學士 시절 時政을 비판하는 여러 문장과 풍유시를 창작하였다. 한적시 창작은 29세부터 시작하여 54세까지 26년간 이어졌는데, 下邳시절 삼사년 동안 지은 한적시가 50여 수이다. 본고는 이 시기 한적시 속에 나타난 작가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여 창작 배경과 향후 작가의 한적시 창작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이 40이 되어 고향 땅인 下邳에서 형성된 전원생활은 치열하게 살아오던 30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의 국면으로 그를 나아가게 만들었다. 절간처럼 고요한 대나무 숲 사이의 초가집에서 종일 산을 관망하다가 책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수가로 나아가서 낚시를 즐기기도 하며, 돌아와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한가로운 사람[閑人]’이라 명명하였다. ‘閑’자는 일상에의 긴장을 내려놓고 본성에 맡기면서, 자연을 향유하고 생명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이었다. 전원생활에서 그는 지난 세월에 대한 회고를 함과 동시에 내면의 자아성찰로 관심을 기울였다. 下邳에서 보낸 전원

\* 동의과학대학교 관광중국어전공 부교수 (whjung@dit.ac.kr)

생활의 4년은 밤이 늦도록 坐定하며 일체의 상념을 잊는 심법을 배웠으며, 몸과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자아성찰의 시간을 통해 백거이는 스스로 안분지족하며 몸은 궁색하더라도 태연자약하며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가는대로 천지자연에 나를 맡기며 ‘自適’하게 살아가는 인생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그 시절 집중적으로 창작된 한적시는 향후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계속 한적시가 창작되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키워드】 閑適, 隱居, 田園生活, 自我省察, 人生觀

## 1. 들어가며

중국 唐代 시인 白居易(772-846)가 남긴 시편은 모두 2916首이다.<sup>1)</sup> 창작 수량으로 보면 唐代 시인 중 거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시편들은 창작 유형별로 諷諭詩, 閑適詩, 感傷詩, 雜律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諷諭詩, 閑適詩, 感傷詩의 세 유형은 古體詩이며, 雜律詩는 五七言 長句와 絕句로 이루어져 있다.<sup>3)</sup> 특히 諷諭詩와 閑適詩는 내용상 서로 상반된 성격을 띠고 있다. 諷諭詩는 “시는 모두 時事에 부합되게 지어야 한다.”<sup>4)</sup>라는 현실주의적 시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閑適詩는 “한가롭게 거처하면서 자신의 성정을 읊은 시”<sup>5)</sup>이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두 유형의 시가 한 시인에게서 동 시대에 가능한 것은 당시 儒佛道の 三敎가 中唐시기에 동시에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sup>6)</sup> 즉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 때에는 풍유시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사회 진출의 의지를 표현하고, 자신의 뜻이 가로막힐 때에는 개인의 성정을 담담하게 나타내는 한적시를 이용하여 은일적인 자아를 드러내었다.

백거이의 한적시는 창작시기가 貞元16년(800) 작가 나이 29세부터 寶曆元年(825) 54세까지의 26년간이며,<sup>7)</sup> 작품의 수량은 216首이다.<sup>8)</sup> 시기별로 보면 백거이가 時事를

1) 毛妍君, 『白居易閑適詩研究』, 중국, 陝西師範大學 박사논문, 2006, p.1.

2) 朱金城 箋校, 『白居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8.

3) 文艷蓉, 『白居易生平與創作實證研究』, 중국, 浙江大學 박사논문, 2009, p.207.

4) “文章合爲時而著歌詩合爲事而作.” 『白氏長慶集』卷45, p.1098.

5) “或退公獨處, 或移病閑居, 知足保和, 吟詠性情者一百首, 謂之閑適詩.” 『白氏長慶集』(卷45), p.1101.

6) 滕漢洋, 『白居易生活與文學考論』, 중국, 復旦大學 박사논문, 2012, p.6.

劉瑤, 『白居易的詩歌與佛寺之關係研究』, 중국, 山西大學 석사논문, 2017, p.2.

7) 백거이는 중앙관계에서 江州司馬로 폄직되어 갔을 때(815년), 자신의 詩 800여 편을 諷諭·感

위한 풍유시 창작에 정점을 찍던 시절도 그 안에 포함된다. 이를 유추해 보면 작가가 특정 유형의 시가 창작을 위해 몰두하던 시절에도 자신을 둘러싼 정치 환경 및 심신의 상태에 따라 한 유형의 시가 창작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그간 한적시에 대해 元和10년(815) 그의 나이 44세에 江州司馬로 폼적되어 가기 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구분지어 연구되어 왔다. 즉 폼적되기 전 단계의 정치에 열망을 품으면서도 한가로움을 찾던 시기와 폼적 이후 스스로 明哲保身해가던 시기의 한적시가 그것이다.<sup>9)</sup> 필자는 일전에 졸고에서 백거이 한적시 전반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에 관해 고찰한 바 있다.<sup>10)</sup> 그의 한적시를 살펴보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한적시를 창작해 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인 下邳 땅으로 退居해 있던 40세에서 43세 시절인데, 이 삼사년 동안 그가 지은 한적시는 50여 수이다. 전체 한적시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시기 몸은 낙양을 떠나 있었지만 정치적인 좌절을 당하지는 않았던 시절이다. 정계에서 다소 멀어져 있어도 이렇게 많은 한적시를 남기기에는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시기 下邳 땅에서의 한적시를 그의 삶과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거이 한적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시 원문과 저작 시기는 朱金城의 『白居易集箋校』본을 저본으로 삼았다.<sup>11)</sup>

## 2. 白居易 生平

이 장에서는 작가의 전체 삶의 이력을 문학작품과 연관지어 간략하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백거이는 唐나라 代宗 大曆 7년(722) 鄭州 新豐縣에서 4형제 가운데 차남으로 태

傷·閑適·雜律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元稹이 백거이 시문을 편집하여 『白氏長慶集』을 만들 때(824년)에도 이와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시를 분류하였다. 유병례, 『白居易詩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박사논문, 1988, p.3. 졸고,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중국학』, 제70집, 대한중국학회, 2020, 03. p.293. 재인용.

윤순일, 『白居易의 後期閑適詩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2003, p.3. 참조.

8) 『白居易集箋校』

9) 毛妍君, 『白居易閑適詩研究』, p.5에 백거이 한적시의 경계에 대해 강주사마 폼적 전후의 두 단계로 구분지어 놓고 있음.

10) 졸고,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11) 朱金城 箋校, 『白居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8. 지난 번 졸고에서도 이 책을 저본으로 하였음.

어났다.<sup>12)</sup> 그의 조부인 白錕과 부친인 季庚이 모두 明經科 출신이다.<sup>13)</sup> 유가적 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오륙 세에 詩作을 공부하였으며, 구세에 시의 성운을 판별할 줄 알았다.<sup>14)</sup> 십오륙 세부터 進士科시험을 염두에 두며 書·賦·詩 등의 과목에 매진하였다.<sup>15)</sup> 貞元10년(794) 23세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28세에 鄉試에 합격하고, 29세에 進仕에 급제하였다. 32세 唐憲宗 貞元19년 拔萃科에 급제하여 校書郎 벼슬을 除授 받았다. 처음으로 관직에 발을 들여놓은 시기이다. 유가의 仁政德治에 입각한 「策林 七十五道」를 지었다.

3년 뒤 元和 원년(806) 35세에 才識兼茂明於體用科에 급제하여 盩厔縣의 縣尉가 되었다. 이 해에 그의 대표작이기도한 感傷詩인 「長恨歌」를 지었다. 元和 2년(807) 36세에 翰林學士에 임명되었으며, 다음 해 元和 3년(808) 37세에 천자에게 결점이나 失政에 대한 간언을 올리는 左拾遺에 제수되어 時政을 비판하는 制詔, 論狀을 쓰고, 많은 奏請을 올려 채택되기도 했다.<sup>16)</sup> 38세 元和 4년(809) 左拾遺와 翰林學士를 유지하였으며, 諷諭詩인 「新樂府 50首」를 作詩하기 시작하였다. 39세 元和 5년(810) 5월 5일에 京兆府의 戶曹參軍으로 직분이 바뀌었으며, 翰林學士는 유지하였다. 그해 즈음에 유명한 諷諭詩인 「秦中吟 10首」를 작시하였다.

元和 6년(811) 40세 되던 해에 모친 陳氏가 5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자, 그해 여름 長安에서 下邳 땅으로 退居하였다. 이때부터 元和 9년(814) 43세까지 下邳에서 생활을 이어갔으며, 「效陶潛體十六首」등을 비롯한 여러 한적시를 작시하였다.

元和 10년(815) 44세에 다시 長安으로 돌아가서 太子左贊善大夫가 되었다. 이듬해 元和 11년(816) 45세에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sup>17)</sup> 江州司馬로 폄직되어 가서, 東林寺와 西林寺 등의 절과 도연명 옛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후 47세까지 江州司馬로 있다가 48세에 江州를 떠나 忠州刺史로 부임하면서부터 71세에 刑部尙書로 관직생활을 마감하였다.

전체적으로 그의 생애를 조망해 보면 45세에 강주사마로 폄직되어 간 사건을 제외하면 30대 이후부터 40여 년간 꾸준히 관직을 맡아 왔다. 그가 흠모하던 도연명처럼 적극적인 전원으로의 은거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시가 이후 계속 창작되어 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40대 초반 下邳시절에 거쳤던 몇 년간의 전

12) 장남은 幼文, 삼남은 行簡, 사남은 幼美이다. 그 중 사남인 白幼美는 貞元8년(792)에 9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滕漢洋, 『白居易生活與文學考論』, p.11.

13) 줄고,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p.292.

14) “及五六歲, 便學爲詩, 九歲, 諳識聲韻.” 『白氏長慶集』(卷45), p.1098.

15) 『白氏長慶集』(卷45), p.1098.

16) 김재승, 『白樂天詩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5, p.23.

17) 『舊唐書』(卷166), 줄고, 『白居易 新樂府의 再照明』, 경북대 석사논문, 1986, p.22. 재인용.

원생활이 그에게 한적시 창작에 지속적인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3. 下邳시절 閑適詩

이 장에서는 작가가 下邳 땅에 退居해 있는 동안 지은 한적시를 통해 작가의 삶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 1) 전원생활

「**魏生訪宿 國生이 잠자리 오다**」

西齋寂已暮, 서재는 고요히 날이 저물었는데,  
叩門聲槁槁. 문 두드리는 소리 들려온다.  
知是君宿來, 그대가 잠자리 온 것을 알고는,  
自拂塵埃席. 스스로 먼지 묻은 자리를 툐다네.  
村家何所有, 촌집에 무엇이 있으리오,  
茶果迎來客. 차와 과일로 오는 손님을 맞이하네.  
貧靜似僧居, 가난하고 고요하니 스님이 거처하는 듯,  
竹林依四壁. 대나무 숲은 사면을 에워싸고 있네.  
廚燈斜影出, 부엌의 등불은 비스듬히 그림자 비추고,  
簷雨餘聲滴. 처마에 비 떨어지는 소리 들려오네.  
不是愛閑人, 한가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니라면,  
肯來同此夕. 굳이 이 밤을 함께 하려 하겠는가!<sup>18)</sup>

이 詩는 元和 7년(812) 작가 나이 41세 시절의 작품이다. 30대 중후반 수년간 민초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과 관리들의 폭정을 작품에 담아내고, 천자 곁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는 諫官으로서의 치열한 삶을 살던 그에게 모친상으로 인하여 下邳 땅에서의 고요한 전원생활이 다가왔다. 살림은 가난하고 거처는 고요하니 마치 절간 스님의 공간과도 같다. 찾아온 객에게 무엇을 대접하려 하나 차와 과일이 전부이다. “사면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대나무 숲, 부엌의 등불, 처마의 낙수소리”는 그가 맞이하고 있는 전원의 풍경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적화자는 스스로를 ‘한가로운 사람[閑人]’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찾아오는 방문객 또한 ‘한가로운 자신’을 좋아

18) 『白居易集箋校』(卷1), p.320.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백거이에게 ‘閑’자는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본성에 맡기면서, 자연을 향유하고 생명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이다.”<sup>19)</sup> 고요함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처마의 낙수 소리가 더욱 돋보이는 전원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閑居 한가로이 거하며」

深閑竹間扉, 대숲 사이 사립문 굳게 닫아걸고,  
靜掃松下地. 고요히 소나무 아래 뜰 쓸어본다.  
獨嘯晚風前, 저녁 바람결에 홀로 휘파람 부니,  
何人知此意. 누가 이 뜻을 알겠는가!  
看山盡日坐, 산을 바라보며 종일 앉았다가,  
枕帙移時睡. 책을 베개 삼아 잠시 잠이 든다.  
誰能從我遊, 누가 능히 나를 따라 노닐며,  
使君心無事. 한가로이 지낼 수 있으리오!<sup>20)</sup>

이 詩는 元和 7년(812)에서 元和 9년(814) 작가 나이 41세에서 43세 시절의 작품이다. 제목에서부터 ‘한가로움[閑]’을 내걸고 있다. 이전 長安의 치열했던 삶의 현장에서의 ‘한가로움’은 ‘공무에 얽매이지 않는’ 순간적인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忙中閑]’이라면, 이곳 下邳 땅에서의 한가로움은 ‘한가로운 가운데의 한가로움[閑中閑]’이다. 대숲 사이 촌가의 사립문 안쪽 뜰 마당의 소나무 아래를 비질하는 행위에서 ‘고요함[靜]’이 돋보인다. 굳이 깨끗이 하려 애쓰는 모습이 아니다. 불어오는 저녁바람에는 휘파람이 절로 난다. 고요한 전원생활이 안겨다주는 기쁨에 어느 누구의 알아줌도 필요가 없다.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 꽃 따다가 고개 들고 남산을 바라보는”<sup>21)</sup> 도연명처럼 시적화자 또한 하루 종일 앉아서 산을 관망하다, 곁에 둔 책을 베개 삼아 잠시 잠을 청한다. 시적화자가 누리는 즐거움은 자신을 얹어매는 욕망의 그림자가 없어야 가능하다. 이는 “세상일에 구애되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늘 편안함”<sup>22)</sup> 상태인 것이다. 이에 시적화자는 이러한 자신을 알아주는 이 드물 것이니, 함께 할 이는 더욱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전원생활의 충일함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友人夜訪 벗이 밤에 내방하다」

簷間清風簾, 처마 사이 대자리로 맑은 바람 불어오고,

19) 毛妍君, pp.10-11. 참조. 줄고,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p.294. 재인용.

20) 『白居易集箋校』(卷1), p.334.

21)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陶淵明 「飲酒-其五」

22) “自若世役不我牽, 身心常自若” 閑適詩 「觀稼」, 『白居易集箋校』(卷1), p.329.

松下明月盃。소나무 아래 밝은 달은 잔을 비추인다.  
 幽意正如此, 그윽한 뜻 정녕 이러할진대,  
 況乃故人來。하물며 벗이 찾아옴에야!<sup>23)</sup>

이 詩는 元和 9년(814) 작가 나이 43세 시절의 작품이다. 초가의 처마 아래 펼쳐놓은 대자리로 전원의 맑은 바람 불어오고, 뜰 안마당 소나무 아래 벌여놓은 술잔에는 밝은 달빛이 찾아온다. 이는 “술잔 들어 밝은 달 맞이하여, 그림자 비쳐 세 사람을 만들어 낸”<sup>24)</sup> 李白의 시적 운치를 느끼게 한다. 長安을 떠나 은거하며 고요히 살아가는 뜻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이런 자리를 함께 해줄 벗이 찾아오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시적화자의 담담한 전원생활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渭上偶釣 위수 가에서 낚시 드리우며」

渭水如鏡色, 위수의 물은 거울처럼 맑은데,  
 中有鯉與魴. 그 속에 잉어와 방어가 노니네.  
 偶持一竿竹, 우연히 낚싯대 하나 들고 가서,  
 懸釣在其傍. 위수 가에서 낚싯줄 드리우네.  
 微風吹釣絲, 미풍이 낚싯줄로 불어오니,  
 嫋嫋十尺長. 열자 길이 낚싯줄은 하늘거리네.  
 身雖對魚坐, 몸은 비록 고기를 대해 앉았으나,  
 心在無何鄉. 마음은 무아지경에 가 있다네.  
 昔有白頭人, 옛날에 백발노인이 있어,  
 亦釣此渭陽. 이 위수의 북쪽에서 낚시를 하였네.  
 釣人不釣魚, 사람을 낚지 고기를 낚지는 아니하였는데,  
 七十得文王. 칠십에 문왕을 만났네.  
 況我垂釣意, 하물며 나의 낚시하는 뜻은,  
 人魚又兼忘. 사람과 고기를 모두 잊어버리는 것.  
 無機兩不得, 생각이 없으니 둘 다 얻지 아니하고,  
 但弄秋水光. 다만 가을 물빛만 희롱하노라.  
 興盡釣亦罷, 흥이 다하니 낚시 또한 끝내고,  
 歸來飲我觴. 돌아와서 내 술잔 마시노라.<sup>25)</sup>

이 詩는 元和 6년(811) 작가 나이 40세 시절의 작품이다. 백거이가 이전까지 몸 담

23) 『白居易集箋校』(卷1), p.338.

24) “舉盃邀明月, 對影成三人” 李白 「月下獨酌」. 『李太白全集』(中), 中華書局, 1995, p.1063.

25) 『白居易集箋校』(卷1), p.313.

고 있던 “長安은 名利를 다투는 場으로, 날 밝으면 편안히 거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sup>26)</sup> 백거이는 고향인 下邳로 退居하였는데, 이곳은 그 옛날 강태공으로 유명한 呂尙이 낚시하면서 문왕을 만났던 渭水 가이다. 시적화자도 강태공을 떠올리며 강가에서 낚시를 드리운다. 화자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이곳 위수 가에서 낚시를 하는 본래 뜻은 물고기를 낚거나 혹은 누군가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복잡다단하게 펼쳐지던 인간사를 모두 잊고 강가에서 물에 비치는 가을의 햇살만 즐길 뿐이다. 낚시의 즐거움이 끝나면 대숲 사이의 촌집으로 돌아와서 술잔 기울인다. 이 시편에서 시적화자가 가장 주목하는 글자는 ‘잊는다’라는 ‘忘’자이다. 고향땅으로 돌아와서는 長安의 생활을 모두 잊고 전원에 폭 파묻히고 싶어하는 작가의 열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 「蘭若寓居 절간에 머무르며」

名宦老慵求, 관료생활에 늙고 게을러져,  
退身安草野. 물러나 초야에 안거하노라.  
家園病懶歸, 집의 정원은 돌아가기 귀찮아,  
寄居在蘭若. 절간에 잠시 머무른다네.  
薜衣換簪組, 관복은 거친 옷으로 바꾸고,  
藜杖代車馬. 지팡이는 수레와 말을 대신하였네.  
行止輒自由, 행동거지는 자유로우니,  
甚覺身瀟灑. 몸이 아주 맑고 상쾌하게 느껴지네.  
晨遊南塢上, 아침에 남녘 제방에서 노닐다가,  
夜息東菴下. 밤에는 동쪽 암자에서 쉬노라.  
人間千萬事, 인간세상 모든 일에,  
無有關心者. 관심이 없는 자 이노라.<sup>27)</sup>

이 詩는 元和 7년(812) 작가 나이 41세 시절의 작품이다. 長安에서의 관료 생활에 싫증이 나서 초야로 돌아왔다는 것을 시의 전면부에서 강조하고 있다. 전원생활은 얹매임이 없으므로 발길 또한 자유롭다. 촌집을 떠나 주변의 암자로 가서 잠시 머물러 본다.<sup>28)</sup> 長安에서 늘 갖추어 입던 의관속대 벗어버리고, 지팡이로 車馬를 대신한다. 발길 닿는 대로 남쪽 제방으로 가서 바람 쐬다가 밤이 되면 암자에서 쉬며, 인간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심신이 아주 맑고 상쾌하다. 전원생활의 자유로

26) “帝都名利場，雞鳴無安居。”「常樂里閑居」，『白居易集箋校』(卷1)，p.265.

27) 『白居易集箋校』(卷1)，p.320.

28) 백거이는 중년 이후 불교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杜雪婷, 『論白居易閑適詩中的生命意識』, 중국, 新疆師範大學 석사논문, 2016, p.2.



움이 전 시편을 관통하고 있다.

이외에 “한가로이 아우와 조카들 데리고, 함께 가을 언덕을 오르니. 햇대추는 아직 덜 붉고, 늦 참외는 여운의 향기를 풍긴다.…… 아쉬워하며 해질 무렵 돌아가려니, 나무마다 바람결에 우는 매미소리 들려온다.”<sup>29)</sup> “남쪽 창 아래 등불 등지고 앉으니, 바람결에 सर락눈 어둠 속에 분분하다. 적막한 깊은 산골의 밤, 뒤쳐진 기러기들의 울음소리 눈 속에 들린다.”<sup>30)</sup> “세상일에 구애되지 앉으니, 몸과 마음이 늘 편안하다. 저녁에 나와서 밭이랑 보고, 한가로이 촌락을 거닌다. ……밭의 촌로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조용히 일어나 술잔을 함께 한다.”<sup>31)</sup> “동쪽 창은 밤이 되어도 열기가 없고, 북쪽 문은 서늘하니 바람이 분다. 종일 앉았다가 또 누우며, 집을 벗어나지 않는다. 마음에 본래 매인 바가 없으니, 또한 문을 나서는 것과 같다네.”<sup>32)</sup> 등의 시편에서 下邳로 退居한 백거이의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엿볼 수 있다.

## 2) 자아성찰

### 「首夏病間 초여름 병이 호전되어」

我生來幾時, 내 생애 얼마나 흘러왔나,  
萬有四千日. 일만 하고도 사천일이 지났네.  
自省於其間, 스스로 지나온 세월 성찰해보니,  
非憂即有疾. 근심 아니면 질병의 세월이었다네.  
老去慮漸息, 늙어 가면서 근심은 점차 줄어들고,  
年來病初愈. 나이 들면서 병은 처음으로 나아졌네.  
忽喜身與心, 홀연히 심신이 좋아지니,  
泰然兩無苦. 자연스레 근심과 질병의 고통 사라지네.  
況茲孟夏月, 하물며 때는 초여름,  
清和好時節. 화창한 좋은 시절이라.  
微風吹袂衣, 미풍은 겹옷으로 불어오고,  
不寒復不熱.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네.  
移榻樹陰下, 평상을 나무 그늘 아래로 옮기고,  
竟日何所為. 종일 무엇을 하나.

29) “閑攜弟姪輩, 同上秋原行. 新棗未全赤, 晚瓜有餘馨. ……留連向暮歸, 樹樹風蟬聲.” 「秋遊原行」, 『白居易集箋校』(卷1), p.324.

30) “南窗背燈坐, 風霰暗紛紛. 寂寞深村夜, 殘雁雪中聞.” 「村雪夜坐」, 『白居易集箋校』(卷1), p.328.

31) “世役不我牽, 身心常自若. 晚出看田畝, 閑行傍村落. ……田翁逢我喜, 默起具杯杓.” 「觀稼」, 『白居易集箋校』(卷1), p.329.

32) “東窗晚無熱, 北戶涼有風. 儘(盡)日坐復(複)臥, 不離一室中. 中心本無係(繫), 亦與出門同.” 「夏日」, 『白居易集箋校』(卷1), p.317.

或飲一甌茗, 한잔 차를 마시기도 하고,  
 或吟兩句詩. 두 구절 시를 읊기도 한다네.  
 內無憂患迫, 안으로는 핍박해오는 근심 걱정 없고,  
 外無職役羈. 밖으로는 얹매인 직분 없다네.  
 此日不自適, 이런 날 즐기지 아니하면,  
 何時是適時. 어느 때가 즐길 때 이런가!<sup>33)</sup>

이 詩는 元和 7년(811) 작가 나이 40세 시절의 작품이다. 한적시를 쓰기 시작한 때는 작가 나이 29세 때부터이고, 관직을 시작한 시기는 32세 때이다. 40세에 下邳지역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관직생활을 하며 천자 곁에서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글을 서슴지 않던 그였다. 비록 한적시를 그 전까지 줄곧 써 왔다고는 하지만, 그 시절의 한적시는 “병이 들지 않고는 쉴 수 없는[不病不得閑]”<sup>34)</sup> 관리의 신분으로서 잠깐 쉬어가는 틈을 타서 한적을 동경하며 시를 짓곤 하였다. 40세가 되어 자신을 움아매는 관직도 없고 車馬의 번잡함도 없는 下邳 땅으로 내려오니,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에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年’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만 사천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바쁘고 치열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기간은 ‘근심과 병마’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초여름 좋은 날에 모처럼 병마도 호전되고 몸과 마음이 가뽏해지니,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서 차도 마시며 시를 읊어보기도 한다.

안팎으로 근심걱정 없이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自適’ 혹은 ‘適’이란 글자로 표현하였다. 백거이는 이 ‘適’자에 대해 시에서 신체와 정신의 두 방면 즉 ‘身適’, ‘形適’, ‘意適’, ‘心適’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육체적인 ‘適’을 정신적인 ‘適’을 이루는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먼저 몸의 평안함과 한가로움이 있는 연후에야, 마음의 즐거움과 흡족함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sup>35)</sup> 지난 시절에 대한 성찰과 함께 한적함의 즐거움을 누려보는 시적화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시편이다.

### 「歸田三首(其三) 전원으로 돌아가다」

三十為近臣, 삼십에 군왕 곁의 근신 되어,  
 腰間鳴珮玉. 허리에는 패옥을 차고 다녔네.

33) 『白居易集箋校』(卷1), 1988, p.318.

34) 「病假中南亭閑望 병가 중 남쪽 정자에서 한가로이 바라보며」, 『白居易集箋校』(卷1), p.277.

35) “先務身安閑, 次要心歡適.” 「詠懷」, 『白居易集箋校』(卷1), p.434.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p.294. 재인용.

四十為野夫, 사십에는 시골의 농부 되어,  
 田中學鋤穀. 밭에서 호미질 배운다네.  
 何言十年內, 십년 동안 세월이,  
 變化如此速. 이렇게 빨리 변함을 어이 말하랴.  
 此理固是常, 이 이치는 본디 영원한 것이니,  
 窮通相倚伏. 빈궁과 현달은 서로 돌고 도는 법.

.....

形骸為異物, 사람의 육체는 이물이니,  
 委順心猶足. 순응하면 마음은 오히려 족한 법.  
 幸得且歸農, 다행히 귀농할 수 있게 되었으니,  
 安知不為福. 어찌 복되지 않는다 하리오.  
 況吾行欲老, 하물며 내 늙어가노라니,  
 譬若風前燭. 별안간 바람 앞에 촛불 같을세라.  
 孰能俄頃間, 어찌 능히 일순간이라도,  
 將心繫榮辱. 마음을 영욕에 매이게 하리오.<sup>36)</sup>

이 詩는 元和 7년(812) 작가 나이 41세 시절의 작품이다. 시적화자는 삼십대의 자신을 ‘군왕을 곁에서 모시는 近臣’으로, 40줄 막 들어선 자신을 ‘시골의 농부’로 표현하고 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신분은 변화무상하기만 하다. 長安의 궁궐에서 펼쳐지는 권력 암투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패기 넘치는 젊은 기백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찾아온 下邳 땅의 시간은 지난날의 성찰과 더불어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빈궁과 현달’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내 앞의 세월은 돌아서면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도연명의 「歸園田居」를 연상케 하는 시의 제목을 달고, 전원에서 자아를 성찰하며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누려보려는 작가의 심지가 읽혀진다.

#### 「適意二首(其一) 마음 가는대로」

十年為旅客, 십년 세월 나그네로 지내며,  
 常有飢寒愁. 늘 굶주림과 추위를 걱정했었네.  
 三年作諫官, 삼년 동안 諫官으로 지내면서,  
 復多尸素羞. 할 일 없이 녹봉 축내는 것 같아 부끄러웠지.  
 有酒不暇飲, 술이 있으나 마실 시간이 없고,  
 有山不得遊. 산이 있으나 놀러갈 수 없었네.  
 豈無平生志, 어찌 평생의 지닌 뜻 없겠는가,

36) 『白居易集箋校』(卷1), p.338.

拘牽不自由。다만 얹매여 자유롭지 못했네.  
 一朝歸渭上, 하루아침에 위수 가로 돌아오니,  
 泛如不繫舟. 둥둥 매어있지 아니한 배와 같네.  
 置心世事外, 마음을 세상 일 바깥에 두니,  
 無喜亦無憂. 기쁨도 근심도 사라졌네.  
 終日一蔬食, 종일 변변찮은 밥 한 그릇에,  
 終年一布裘. 일 년 내내 베옷 한 벌.  
 寒來彌懶放, 추워지니 더욱 게을러져,  
 數日一梳頭. 며칠에 빗질 한번.  
 朝睡足始起, 아침까지 실컷 자고 일어나며,  
 夜酌醉即休. 밤에는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네.  
 人心不過適, 사람의 마음 편안하면 그만이니,  
 適外復何求. 편안함 밖에 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sup>37)</sup>

이 詩는 元和 7년(812) 작가 나이 41세 시절의 작품이다. 본문에서 시적화자는 지  
 나온 30대의 10년간을 ‘나그네[旅客]’로 묘사하고 있다. 돌이켜 보니 주체적으로 살아  
 간 세월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기 위한 도구로 벼슬  
 살이를 하였다는 자책을 하고 있다. 천자와 백관의 눈에 거슬리는 언행도 서슴지 않  
 으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간 3년간의 ‘諫官’의 세월도 화자는 그저 녹봉만  
 축내며 지냈다고 자책한다. 더욱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은 “술이 있어도 시간이 없고,  
 산이 있어도 놀리갈 여유”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함이다. 제 7구에서 화자는 ‘평생  
 의 지닌 뜻’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바로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이다. 본인이 長安  
 에서 치열하게 살 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가로운 전원으로 돌아오니 평생에 간  
 직해온 자신의 뜻이 외면으로 들어난 것이다. “마음을 세상 일 바깥에 두니, 기쁨도  
 근심도 사라졌다.”라는 말은 도연명의 “마음이 속세에서 멀어지니, 살고 있는 곳도  
 저절로 외진 곳이 된다.”<sup>38)</sup>라는 구절이 연상된다. 평생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시골  
 로 돌아오니, 옷이나 음식은 그저 배만 채우면 된다. 외모도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술 한번 제대로 편안하게 마시는 여유도 없이 살다가 실컷 자고 마음껏 취해 본다.  
 지난 10년간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백거이의 삶의 방향성이 드러나 있다.

### 「冬夜 겨울밤」

37) 『白居易集箋校』(卷1), p.317.

38) 「心遠地自偏」, 陶淵明 「飲酒-其五」.

家貧親愛散, 집안이 어려워져 식솔들은 흩어지고,  
 身病交遊罷. 몸에 병이 드니 벗과의 교유도 끊어지네.  
 眼前無一人, 눈앞에는 사람 한명 없고,  
 獨掩村齋臥. 홀로 문 닫고 촌집에 누워 지낸다.  
 冷落燈火暗, 쓸쓸하니 등불은 희미하고,  
 離披簾幕破. 휘날리던 장막은 찢어졌네.  
 策策窗戶前, 바람 불던 창문 앞에,  
 又聞新雪下. 또 다시 눈 내리는 소리 들려온다.  
 長年漸省睡, 나이 들며 점점 잠이 줄어,  
 夜半起端坐. 한 밤에 일어나 단정하게 앉는다.  
 不學坐忘心, 일체의 상념을 잊는 심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寂莫安可過. 적막한 밤을 어떻게 보내리오.  
 兀然身寄世, 우뚝하니 몸을 세상에 맡기고,  
 浩然心委化. 광대하게 마음을 자연의 변화에 맡겨둔다.  
 如此來四年, 이렇게 하여 보낸 사년의 세월,  
 一千三百夜. 일천하고도 삼백 밤이라.<sup>39)</sup>

이 詩는 元和 9년(814) 작가 나이 43세 시절의 작품이다. 長安에서 관직에 있을 때는 “매월 받는 봉급에 여유가 있어서, 의식주는 그다지 구애받지 않았지만,”<sup>40)</sup> 고향으로 내려와서는 수입이 없으니 식솔들도 함께 하기 어렵고, 몸에 병이 드니 벗들의 발걸음도 드물다. 대숲 사이 촌집에 말동무도 없이 홀로 문 닫고 누워 지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등불은 희미하고 바람에 흩날리던 휘장도 찢어졌는데, 창문 앞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시의 도입부부터 중반까지의 전개를 보면 시적 화자의 다음 행동은 더욱 연민을 불러일으킬 것만 같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坐定하며 일체의 상념을 잊어버리는 심법을 터득하고 있다. 시편에서 ‘坐忘’이란 『莊子』에 나오는 어구로 “육체의 작용을 물리치고 형체를 떠나며, 지적 작용을 떨치면서 道와 일체가 되는 상태”<sup>41)</sup>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몸을 세상에 맡기면서 마음은 툭 터지며 자연의 흘러가는 변화에 맡겨둔다. 자신의 물질적인 열악한 환경을 철저한 내면의 성찰로 전환하면서 하루하루 일자까지 헤아리면서 고향 땅에서의 일천 사백 밤을 보내고 있는 백거이다.

이외에 “막 목욕하고 나니 몸이 개운하고, 홀로의 잠자리에 정신이 편안하다. 이에

39) 『白居易集箋校』(卷1), p.336.

40) “月給亦有餘, 既無衣食牽.” 『常樂里閑居』, 『白居易集箋校』(卷1), p.265.

41) “何謂坐忘? 顏回曰: 墮肢體, 黜聰明, 離形去知, 同于大通, 此謂坐忘.” 『莊子·大宗師』. 안동림, 『莊子』, 현암사, 1993. p.215. 번역 참조.

밤이 깊도록 앉았다가, 해가 높이 떠올라서야 잠을 이룬다. 봄 이불 얹어도 따뜻하고, 아침 창가는 후미지면서도 한가롭다. 인간의 일을 잊으니, 베개 위의 신선이 된 것 같다네.”<sup>42)</sup> “몸이 편안하니 사지를 잊고, 마음이 편안하니 시비를 잊는다. 편안하면서도 또 편안함을 잊으니, 내가 누구인지 모를세라. 온 몸은 마른 나무와 같아, 올연히 아는 것이 없고, 마음은 타고 남은 재와 같아,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 없다.”<sup>43)</sup> “움직이지 않는 것은 두터운 땅이요, 쉬지 않는 것은 높은 하늘이다. 무궁한 것은 해와 달이요, 장구한 것은 산천이다. …… 아! 여러 무리 중에 인간만이 그렇지 못하다네.”<sup>44)</sup> 등의 시편에서도 백거이의 자아성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3) 인생관

#### 「遣懷 회포를 풀다」

寓心身體中, 마음은 신체에 기탁해있고,  
寓性方寸內. 본성은 마음에 기탁해있다네.  
此身是外物, 이 몸은 外物에 불과하거늘,  
何足苦憂愛. 어찌 힘들게 근심하고 아끼리오.  
況有假飾者, 하물며 거짓으로 장식하는 자,  
華簪及高蓋. 화려한 비녀와 높은 수레 탄다네.  
此又疏於身, 이들은 또 몸에는 소홀히 하고,  
復在外物外. 다시 몸 바깥의 경계에 관심을 둔다네.  
操之多惴慄, 그것을 잡으려 두려워 떨고,  
失之又悲悔. 그것을 잃을까 또 슬퍼하고 후회하네.  
乃知名與利, 이제 알겠노라니 명성과 이익은,  
得喪俱為害. 얻고 잃는 것 모두 해로울 뿐이란 걸.  
頽然環堵客, 조용히 물러앉은 방안의 나그네,  
蘿蕙為巾帶. 담쟁이와 혜초로 두건과 띠를 삼는다네.  
自得此道來, 스스로 이 도리를 깨달으면,  
身窮心甚泰. 몸은 궁해도 마음은 태연자약하다네.<sup>45)</sup>

42) “新浴肢體暢，獨寢神魂安。況因夜深坐，遂成日高眠。春被薄亦暖，朝窗深更閑(閒)。卻忘人間事，似得枕上仙。『春眠』，『白居易集箋校』(卷1)，1988，p.315.

43) “身適忘四支，心適忘是非。既適又忘適，不知吾是誰。百體如槁木，兀然無所知。方時如死灰，寂然無所思。”『隱几』，『白居易集箋校』(卷1)，1988，p.314.

44) “不動者厚地，不息者高天。無窮者日月，長在者山川。……嗟嗟羣物中，而人獨不然。”『郊陶潛體詩十六首(其一)』，『白居易集箋校』(卷1)，1988，p.303.

45) 『白居易集箋校』(卷1)，p.313.

이 詩는 元和 6년(811)에서 元和 9년(814) 작가 나이 41세에서 44세 즈음의 작품이다. 마음은 신체에 갇들어 있고, 본성은 그 마음에 기탁해 있을 뿐이라는 哲理를 깨달은 시적화자에게 外物에 의한 집착은 사라져 보인다. 화려한 장식과 높은 수레를 타며 위선과 가식에 찌든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잃을까 늘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산다. 전원에서 자신을 조용히 성찰해 오던 시적화자는 이제 명확히 깨닫고 있다. 명리는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해한다는 것을.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박한 물질로 내 자신의 두건과 띠를 삼는 행위는 명리에 집착하는 세인들에 대한 비판이자, 스스로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철리를 깨달은 작가는 향후 자신의 처지가 궁색함에 이르지라도 마음만은 태연자약할 수 있는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

#### 「閑居 한가로이 거하며」

空腹一盞粥, 공복에 한 사발 죽이,  
飢食有餘味. 주릴 때는 맛이 정말 좋다네.  
南簷半床日, 남쪽 처마 밑 침상에 별이 좀 들면,  
暖臥因成睡. 따뜻하게 누워서 잠이 든다네.  
綿袍擁兩膝, 솜옷으로 두 무릎을 감싸고,  
竹几支雙臂. 죽개로 두 팔 지탱한다네.  
從旦直至昏,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身心一無事. 심신에 아무 일도 없다네.  
心足即為富, 마음이 족하면 즉 부자이며,  
身閑乃當貴. 몸이 한가로우면 곧 귀하다네.  
富貴在此中, 부귀가 이 가운데 있으니,  
何必居高位. 하필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리오.  
君看裴相國, 그대 배상국(재상)을 보시게,  
金紫光照地. 화려한 조복이 바닥에 눈부시게 비추는 것을.  
心苦頭盡白, 마음은 괴롭고 머리는 온통 백발인데,  
纔年四十四. 나이 겨우 마흔 넷이라네.  
乃知高蓋車, 이제 알겠노라니! 높은 고귀한 수레에,  
乘者多憂畏. 타는 이는 근심 걱정 많다는 것을.<sup>46)</sup>

이 詩는 元和 6년(811) 작가 나이 40세 시절의 작품이다. 전원엔 한가로이 거하고 있는 시적화자의 모습이 시의 전반부에 나타난다. 배부름은 없어도 공복에 한 그릇

46) 『白居易集箋校』(卷1), p.316.

죽과 처마 밑으로 살짝 비추이는 햇살에 의지하며 침상에 누워있는 화자의 모습이 선명하다. 포근한 명주이불 없이 솜옷으로 무릎 감싸고 죽궤로 팔베개 하면서도 종일 일없이 편안해 함이 마치 顔回의 ‘一簞食一瓢飲’<sup>47)</sup>을 연상시킨다. 시의 중반부에서 시적화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음이 죽하고 몸이 한가로운 것이 바로 부자라는 것을! 고관대작의 높은 자리가 마음의 부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시 나라의 재상을 역임한 배상국의 예를 통해서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배상국은 나이 겨우 마흔 넷에 심신이 괴로우니 온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전원에서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자아성찰로 인생의 철리를 깨닫고 한적함을 즐기는 백거이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遊藍田山卜居 남전산으로 가서 거처를 점쳐본다」

脫置腰下組, 허리의 인장 끈 풀어놓고,  
 擺落心中塵. 마음의 먼지 털어버린다네.  
 行歌望山去, 노래 부르며 산을 향해 나아가니,  
 意似歸鄉人. 뜻은 고향에 돌아온 사람 같다.  
 朝謁玉峰下, 아침에 옥봉 아래를 밟고,  
 暮尋藍水濱. 저녁에 남수 가를 찾는다.  
 擬求幽僻地, 깊숙하고 후미진 곳 찾아서,  
 安置疏慵身. 게으른 몸 안치하고자 하노라.  
 本性便山寺, 본디 성품이 山寺에 어울리니,  
 應須旁悟真. 응당 悟真寺에 깃들밖에.<sup>48)</sup>

이 詩는 元和 7년(812) 작가 나이 41세 시절의 작품이다. 시적화자는 관리의 상징인 허리에 차던 인장 끈 풀어 버리면서 마음에 쌓인 먼지도 툭툭 털어버린다. 입에 서는 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 앞의 산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이제야 비로소 귀향한 사람 같음을 느끼고 있다. 지금 시적화자가 향하고자 하는 곳은 사람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깊숙하고 후미진 곳이다. 스스로 자신을 ‘게으르다[慵]’라고 표현하면서 한적함을 누리보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을 방치하는 않는다. 스스로의 성품을 절간에 어울린다고 하면서 사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서 내면을 성찰하며 한가로운 삶을 이어가겠노라고 하는 인생관이 엿보인다.

47) “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賢哉回也.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먹으면서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 『論語·雍也』

48) 『白居易集箋校』(卷1), p.327.



## 「清夜琴興 맑은 밤 거문고 타며」

月出鳥棲盡, 달뜨고 새는 모두 깃드는데,  
 寂然坐空林. 고요히 텅빈 숲에 앉았노라.  
 是時心境閑, 이 때 마음의 경계 한가로워져,  
 可以彈素琴. 소박한 거문고를 탈 수 있노라.  
 清泠由木性, 맑고 깨끗한 소리는 나무의 본성에서 나오고,  
 恬澹隨人心. 욕심없고 담백함은 사람의 마음을 따르네.  
 心積和平氣, 마음에 화평한 기운 쌓이니,  
 木應正始音. 나무는 청담한 음으로 대응한다.  
 響餘群動息, 울림의 여운은 못 움직임 멈추게 하고,  
 曲罷秋夜深. 곡이 끝나니 가을밤은 깊어 간다.  
 正聲感元化, 바른 음악이 원기에 감응하니,  
 天地清沉沉. 천지는 맑고 고요해진다네.<sup>49)</sup>

이 詩는 元和 6년(811)에서 元和 8년(813) 작가 나이 40세에서 42세 시절의 작품이다. 새가 모두 등지에 깃든 고요한 달밤에 홀로 고요히 텅빈 숲에 앉아 있음은 시적 화자가 성찰을 통해 주간에는 들을 수 없던 내면의 울림을 듣고자 함이다. 이러한 순간이 와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경계가 ‘한가로움[閑]’에 이른다. 그때 거문고와 시적화자의 마음의 경계가 한데 어우러지니 소리는 맑고 깨끗하게 울려 퍼지는데, 이는 거문고가 장식이 없는 소박한 나무의 본성을 유지하며, 연주자의 심적 경계가 욕심이 없고 담백하기 때문이다. 연주가 깊어질수록 시적화자의 마음에는 화평한 기운이 계속 쌓여가고, 거문고는 청담한 음으로 그 기운에 화답을 한다. 이러한 餘音의 美는 모든 생명체의 분주한 움직임을 쉬게 한다.<sup>50)</sup> 이에 가을밤은 깊어가고 천지는 맑고 고요함에 잠긴다. 단순한 ‘한가로움’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승화시켜 천지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백거이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이다.

백거이가 元和 6년(811)에서 元和 9년(814) 40세에서 43세 사이 역시 고향인 下邳에서 지은 「養拙(어리석음을 기르다)」라는 시편에는 “마음에 흔쾌히 名利를 버리고, 지난 흔적도 없애며 전원으로 돌아간다. 초가집에 기거하며, 거문고와 술 향아리 마주한다.”라고 하여 거문고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드문 전원생활을 하는 백거이에게 다정한 벗이 되어준다. 아울러 “육신이 번잡한 굴레와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귀는 조정과 저자거리의 시끄러움을 벗어나서” 스스로 “소요자재하며 하는 일 없이,

49) 『白居易集箋校』(卷1), p.302.

50) 이 시편의 “響餘群動息”라는 구절은 陶淵明의 「飲酒-其七」의 “日入群動息(해 지자 모든 움직임은 멈추고)”라는 구절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뒤 세 글자는 백거이가 도연명의 이 시를 떠올리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老子的 도덕경을 읽는다.” 이러한 전원생활은 내적성찰을 통해 “도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백거이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sup>51)</sup>

이외에 “천성과 천명은 진실로 이러하니, 어기면 도리어 고생스러워지리. 스스로 안분지족하며, 궁색하나 매양 기뻐하며 사노라.”<sup>52)</sup> “인생 바라는 바 무엇인가? 바라는 바 다만 양 극단일 따름일세. 중인은 부귀를 사랑하고, 고매한 선비는 신선을 흠모한다네. ……산 아래로 돌아가서, 봄밭에 법의 씨앗을 뿌리리라.”<sup>53)</sup> “몸은 날로 여위어가고, 시절의 명은 날로 어그러져 간다. 어찌 나만 이러하겠는가, 성현들도 어찌 할 수 없나니. ……이에 도리어 스스로 위로를 하나니, 항상 마음의 평화로움을 간직 하리라.”<sup>54)</sup> “……이에 알겠노라 덧없는 세상 사람들, 젊어서부터 흰 백발 드리우고 있음을. 나는 지금 사십을 넘겼는데, 저들을 생각하니 애오라지 스스로 기뻐하노라. 이 밝은 거울 안에, 머리 눈처럼 새는 것 싫지 않노라.”<sup>55)</sup>, “……고개 들어 가지 위의 과일 따고, 고개 숙여 밭이랑의 아욱 꺾노라. 죽히 배고픔과 갈증 채울 수 있나니, 어찌 반드시 달고 기름진 것만 바라리오. 하물며 따르는 좋은 무리들 있어, 조석으로 따름에랴.”<sup>56)</sup> 등의 시편에서도 안분지족하며 유유자적하게 삶을 살아가려는 백거이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 4. 나오며

32세에 校書郎 벼슬로 처음 관직에 발을 들여 놓은 백거이는 이후 翰林學士와 左拾遺에 제수되어 천자에게 時政에 관한 諫言을 올림과 동시에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많은 문장과 풍유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나이 40이 되어 모친 陳씨의 상을 계기로 고향 땅인 下邳로 退居하게 된다. 여기서 자연스레 형성된 전원생활은 바쁘면서도

51) 이 단락에 인용된 구절은 모두 백거이의『養拙』이라는 시편이다. “甘心謝名利，滅跡歸丘園。坐臥茅茨中，但對琴與鐃。身去羈鎖累，耳辭朝市諠。逍遙無所為，時窺五千言。……可以探道根。”『白居易集箋校』(卷1), p.291. 이 시편은 줄고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p.304에 인용된 시편임을 밝혀둔다.

52) “性命苟如此，反則成苦辛。以此自安分，雖窮每訢訢。”『詠拙』, 『白居易集箋校』(卷1), p.334.

53) “人生何所欲，所欲唯兩端。中人愛富貴，高士慕神仙。……不如歸山下，如法種春田。”『歸田三首(其一)』, 『白居易集箋校』(卷1), p.322.

54) “面顏日枯槁，時命日蹉跎。豈獨我如此，聖賢無奈何。……以此反自慰，常得心平和。”『寄同病者』, 『白居易集箋校』(卷1), p.326.

55) “……乃知浮世人，少得垂白髮。余今過四十，念彼聊自悅。從此明鏡中，不嫌頭似雪。”『聞哭者』, 『白居易集箋校』(卷1), p.330.

56) “……仰摘枝上果，俯折畦中葵。足以充飢渴，何必慕甘肥。況有好羣從，旦夕相追隨。”『新構亭臺，示諸弟姪』, 『白居易集箋校』(卷1), p.330.

치열하게 살아오던 30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의 국면으로 그를 나아가게 만든다. 사면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초가집은 살림이 가난하지만 거처는 절간처럼 고요하다. 촌가의 사립문 안쪽 뜰 마당의 소나무 아래를 비질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산을 관망하다가 책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기도 한다. 때로는 위수 가로 나아가서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 낚시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술잔을 기울인다. 스스로를 “인간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자”<sup>57)</sup>라고 선언하면서 절간으로 발걸음 옮겨 일정 기간 머무르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전원생활은 “서적 교감 등의 직책을 맡으며, 한 달 30일 중 20일은 출근해야 하는”<sup>58)</sup> 長安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원생활에서 그는 스스로를 ‘한가로운 사람[閑人]’이라 명명하며, 찾아오는 방문객 또한 바쁜 백거이가 아닌 ‘한가로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閑’자는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본성에 맡기면서, 자연을 향유하고 생명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이다.”<sup>59)</sup> 이러한 즐거움은 자신을 잃어매는 욕망의 그림자가 없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閑’자에 동반되는 것은 ‘忘’의 개념이다. 그의 전원생활은 일상에서의 행위자체에 대한 즐거움이다. 낚시를 하면 사람과 물고기 모두 잊고 그 순간 물에 비치는 가을 햇살만 즐기는 백거이이다. 그에게 고향 땅 下邳생활은 “세상일에 구애받지 않고, 몸과 마음이 늘 편안한”<sup>60)</sup> 상태의 전원생활 그 자체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한가로움이 더해지는 전원생활에서 그는 내면의 자아성찰로 관심을 기울인다. 나이 40의 문턱으로 올라온 때, 자신을 회고하는 시에서 자신의 생애를 “일만하고도 사천일이 지났다.”<sup>61)</sup>라고 40년을 일수로 바꾸어 계산하고 있다. 그만큼 찬찬히 깊이 들여다본다는 예시가 된다. 지난 시절에 대해 그는 “허리에 패옥을 차고 다니며 군왕을 곁에서 모시는 近臣이었으며”, “근심 아니면 질병의 시간이었고”, “술이 있어도 마실 시간이 없고, 산이 있어도 놀러갈 여유가 없으며”, “병이 들지 않고는 쉴 수 없는” 시절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안팎으로 죄어오는 근심 걱정도 없고, 얽매인 직분도 없는 자유로운 환경”<sup>62)</sup>의 전원생활은 그로 하여금 인생의 철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빈궁과 현달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세월은 돌아서면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이러한 성찰의 깊이를 더

57) 『蘭若寓居』, 『白居易集箋校』(卷1), p.320. 3장에서 인용함.

58) “典校在祕書, 三旬兩入省” 『常樂里閑居』, 『白居易集箋校』(卷1), p.265.

59) 毛妍君, pp.10-11. 참조. 줄고,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p.294. 재인용.

60) “自若世役不我牽, 身心常自若” 閑適詩 『觀稼』, 『白居易集箋校』(卷1), p.329.

61) “我生來幾時, 萬有四千日。” 『首夏病間 초여름 병이 호전되어』, 『白居易集箋校』(卷1), 1988, p.318. 3장에서 인용.

62) 3장에서 인용된 시편들의 번역임.

해 가기 위해 “밤이 늦도록 坐定하며 일체의 상념을 잊는 심법을 배우고, 우뚝하니 몸을 세상에 맡기면서, 광대하게 마음을 자연에 변화에 맡겨둔다.” 이렇게 하여 보낸 세월이 4년이며, 일수로는 1,300일 이라고 세고 있다. 이는 고향 땅 下邳에서 보낸 기간이 마냥 즐긴 세월이 아니라,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자아성찰로 이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sup>63)</sup>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백거이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관을 확립해 간다. “마음은 신체에 깃들여 있고, 본성은 그 마음에 기탁해 있다. 신체는 外物에 불과할 뿐인데, 힘들게 무엇을 근심 걱정하겠는가!”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무의 본성에서 나오듯, 욕심없고 담백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천성과 천명은 타고난 것이니, 어기면 도리어 고생한다. 스스로 안분지족하며 궁색하더라도 기뻐하며 살아간다.” 라는 철리를 깨닫는다. 깨달음 뒤에는 “조용한 방안에 물러 앉아, 담쟁이와 혜초로 두건과 띠를 삼고”, “공복에 한 사발 죽”과 “처마 밑 침상을 살짝 찾아드는 햇살” 반기며, “숨옷으로 두 무릎을 감싸고, 죽궤로 두 팔을 지탱하면서도” 마음이 풍족함을 느낀다. “허리의 인장 끈 풀어놓고, 마음의 먼지 털어버리고”, “고요한 텅빈 숲에 홀로 앉아, 마음의 경계가 한가로워 짐”을 느끼는 실천적 행위가 수반된다. 이러한 도리의 깨달음과 실천적 행위를 거친 그는 “몸은 궁해도 마음은 태연 자약한” 단계로 나아가서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가는대로 천지자연에 나를 맡기며 ‘自適’하게 살아가는 인생관을 확립하였다.<sup>64)</sup>

長安에서 벗어나 고향 땅 下邳에서 보낸 수년간의 전원생활, 그 속에서 이루어진 내면의 자아성찰, 도교와 불교에 대한 깊은 영향,<sup>65)</sup> 이를 통해 이루어진 백거이의 인생관은 이 시절 그에게 집중적으로 한적시가 창작되어질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축적되어진 한적시는 자신의 내면이 충분히 발현된 결과물이며, 이후 전원을 벗어나서 다시 여러 관직을 오르내리면서 다양한 인간사에 접하면서도 한적시가 계속 창작되어 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이후 시간과 역량이 주어진다면 백거이 한적시에 대해 陶淵明과 王維의 산수 전원시와 비교 고찰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백거이 한적시에 대해 시기에 따른 내용의 차별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63) 3장에서 인용된 시편들의 번역임.

64) 3장에서 인용된 시편들의 번역임.

65) 백거이의 불교신앙은 도교신앙에 비해 지속된 시간도 길었고, 이해도도 더욱 깊었다. 아울러 어느 한 종파에 구속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각 파의 불교에 대해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불교의 禪宗사상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謝華平, 『白居易與閑禪宗思想經典』, 福建師範大學 석사논문, 2017, p.1. 孫昌武, 『禪思與詩情』, 中華書局, 2006. p.167.

## 【참고문헌】

- 김재승, 『白樂天詩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85. p.23.
- 안동립, 『莊子』, 현암사, 1993. p.215.
- 유병례, 『白居易詩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박사논문, 1988. p.3.
- 윤순일, 『白居易의 後期閑適詩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2003, p.3.
- 정원호, 『白居易 新樂府의 再照明』, 경북대 석사논문, 1986. p.22.
- \_\_\_\_\_,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중국학』, 제70집, 대한중국학회, 2020.03, p.293.
- 白居易, 『白氏長慶集』, 藝文印書館, 1981.
- 『論語注疏』(十三經注疏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李太白全集』(中), 中華書局, 1995, p.1063.
- 孫昌武, 『禪思與詩情』, 中華書局, 2006, p.167.
- 滕漢洋, 『白居易生活與文學考論』, 復旦大學 박사논문, 2012, p.6.
- 毛妍君, 『白居易閑適詩研究』, 陝西師範大學 박사논문, 2006, p.5.
- 文艷蓉, 『白居易生平與創作實證研究』, 浙江大學 박사논문, 2009, p.207.
- 杜雪婷, 『論白居易閑適詩中的生命意識』, 新疆師範大學 석사논문, 2016, p.2.
- 劉 瑤, 『白居易的詩歌與佛寺之關係研究』, 山西大學 석사논문, 2017, p.2.
- 謝華平, 『白居易與閑禪宗思想經典』, 福建師範大學 석사논문, 2017, p.1.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閑適, 隱居, 田園生活, 自我省察, 人生觀				
Key Words	영문	Leisure, Secluded, Rural Life, Self-Examination, View of Life				
<div>Study on Bai Juyi's Leisure Poems during Days in Xiagui</div> <div>Jung, Won-Ho</div> <p>This study aims to discuss leisure poems written by Bai Juyi, a poet during the Tang Dynasty of China, when he led a secluded life at his hometown, Xiagui, in his early 40s. His creative works with leisure poems lasted for 26 years from when he was 29 years old until 54 years old. The total number of his leisure poems reaches 216 pieces. But the number of leisure poems that he wrote during his secluded life in his hometown, Xiagui, is 50 pieces. This study examined the back ground of his creations and impacts delivered to his creation of leisure poems by observing the outlook of his life reflected on those poems during that time. His rural life embracing the hometown of Xiagui was filled with limitless relaxations. He just kept staring at mountains from his cottage surrounded by bamboo groves all day long, took a nap with the books for his pillow, or went down to a stream for fishing and came back for drinks. The rural life filled with relaxations gave him time to appreciate the Mother Nature and embrace the joy of life without feeling any tensions from daily lives. Such rural life led him to self-examination by revisiting the years behind him. His previous years were mostly marred with anxiety and illness. He couldn't take a break unless he became ill. For those 4 years that he spent living in the countryside, he learned how to mediate without falling into complex ideas while calmly sitting through the night. Thanks to such time of self-examination, he learned to embrace his own fate and was able to build his own view of life enabling him to lead a comfortable life in the way unfolded by the life itself. Afterward, such view of life served him as the foundation to continue creating leisure poems well into his 50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정원호 / 鄭元皓 / Jung, Won-Ho				
	소 속	동의과학대학교 관광외국어계열 관광중국어전공				
	Em@il	whjung@dit.ac.kr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14	심 사 일	2020.11.28	게재확정일	2020.12.14